



전주매일 신문사가 지난 27일 오후 백송회관에서 본사 편집위원회 정기총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본사 발전, 지역민과의 소통 · 봉사 노력



권순태 편집위원장 등
새 위원회 임원진도 선출

전주매일 신문사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오후 7시 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 편집위원회는 본사 발전과 지역민과의 소통, 봉사,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작년 10월 준비회를 구성해, 지난 4월 발기인회를 통해 시작했다.

권순태 편집위원장
전주매일 조봉성 대표는 "전국민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해 12년 차인 전주매일 편집위원으로 오신 것에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임원진도 선출했다. 위원장으로는 권순태, 감사에 장순식·김종원, 총무위원에 고석, 재무위원에 김하나 상조위원에 김종갑순이다. 권순태 위원장은 "총회에서 위원장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주매일 편집위원회는 물론 신문사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조봉성 대표(사진 왼쪽)과 김양욱 부사장이 편집위원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